



# 정론 장군님 환희 웃으신다

일본에 맞으시는 2월이 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이 아침도 명사들과 인민들이 보고 싶으시여서 멀리 어느 험한 길로 애전차를 달리고 계실 것만 같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정생을 하루와 같이 강행군길에 계신 우리 어버이, 자신의 온을 꽝하고 바쳐 이 조선의 억년기동이 되시고 만족의 힘에 퇴신 우리 장군님에서 이제라도 만시불놓으시기, 기쁨속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천민아들들이다.

그 이의 꿈은 무엇이었던가. 『광명성-4』호의 황홀한 비행운이 만리대성을 수놓고 있는 이 환희의 불에 우리 장군님께서 드릴 가장 빠른 끊타당은 무엇이며 이 시각 그이의 현령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 1

여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물웅진, 한겨울에도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람마다 즐거움을 웃고 만드는 문수를 놓이장이다. 인민이 누리는 향유의 숨결이 가슴을 흡수해 쇠주는 이 행복의 절에 들어서니 이를 할수 없는 적정이 온몸을 훔싸운다. 해양의 미소를 지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맞아주신다.

금방 진선에서 돌아온 신호기의 홍내에 아전부치며 이시다. 천지개벽한 통령님의 물놀이장을 찾으셨던 몇몇 청난처럼 환호하는 인민들을 향해 어서 계속하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거듭 손짓하실 것만 같다.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홀륭한 물놀이장을 안겨주자고 하시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끝까지 땀을 쓰신 위대한 장군님.

정령한 근로자들, 귀여운 아이들이 물의 박물의 주인이 된것이 그려지면서 헤빛처럼 환히 웃으신다. 인민의 웃음이 그 어떤 회의한 꽃바구니보다, 이 세상 그 모든 정승의 노래보다 더 깊고 소중하십니다. 행복한 그 모습을 대하시는것이 더 없는 땅이기 기쁨이어서 선뜻 걸음을 못 때시는듯...

어제 여기 물놀이장뿐이라. 스끼바람, 송마바람 일어번지는 저 미식령의 스끼장과 미림의 송마구락부에 도, 흥성이는 물들어풀이미며 유재하게 빙어는 유원지들에도 그이의 기쁨이 출렁인다. 눈무시게 일떠선 새 저리들과 현대화된 멋쟁이 물총들, 물고기며 유흘거리는 양어장들과 풍성한 버섯기지, 남새온실들에도 장군님의 환하신 영성이 및단다. 문명이 끊어나고 개직의 땅이 솟는 이 땅의 어느곳에나 그렇게 서게 되며 인민들과 상봉하시고 환황한 베일을 촉축하신다.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 2월의 화복, 격동하는 우리 세월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무궁토록 짐이 전해갈 고귀한 진리를 여기서 물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헌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현신의 정장을 우리 조국의 면모로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조국은 봄을 맞고 있다. 계절의 흐름을 따라오는 자연의 봄이 아니라, 이 땅은 절어가는 문명의 봄기, 나날이 커가는 강국의 힘을 암고 얹세게 대동한다.

택강국의 억년기동을 세우고 우주 강국의 힘있는 나래를 렸다. 세계를 알지르는 우리의 힘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명력을 넓히고 조선사람의 본래를 파악하는 영웅신들이 떤이어 태여난다. 우리 힘, 우리 의지대로 혁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대,

무엇이든 마음먹은대로 창조하며 부총의 궤도를 휩쓸고 주는 가슴 후련한 세월이다.

이 세월의 저랑스러운 부총들을 봄 아본다. 한려마, 만려마의 시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이 나는 세월,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는 시대, 건설의 대변영기...

그러나 그 모든 부총우에 문제와도 같은 자기의 전정한 이름이 있다.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장군님 웃으시는 영상이 눈에 선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경이적인 현실을 때마다 드겁게 되어서는 이 말씀, 때로는 환히 웃으시며, 때로는 조용히 눈곱 직시시며 가슴속의 불같이 떠신다.

우리 장군님의 기쁨이 전으로, 안으로 늘어난 세월이다. 우리의 시공간이 그대로 장군님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가득한 영광의 세월이다.

한 나라의 강성과 번영의 기쁨을 할 때 그것은 수백수천의 비약과 기적들이 다채로운 폭발로 일어나는 대양의 시대라고 할수 있다. 세인을 놀라우는 그 사변들이 하나의 부풀고 잉답이 있다면, 그 모든 시작도, 눈부신 결실도 그 부총을 만나 생각할수 없다면 아마도 그 부총은 민족의 힘과 장례를 담보하는 강대한 밀뿌리, 영원한 생명소일 것이다.

우리 장군님!

어서서나 흘러나온다. 누구에게서나 떠져나온다.

장전저씨의 황홀한 인민극장에 가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해오시고

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특별히 관심하신 국장이라는 걱정의 사연을 들을수 있고 몽파인민유원지와 청양군원유선종양연구소에 가면 우리 장군님 몸소 발기하고 설계도면까지 전히 헌신한 창조물이라고 감동에 넘쳐난다. 그 날로부터 청양군에는 조선의 내법과 위성이 중기 한 비행운으로 광명성, 그 이름을 우주에 새기고 있으나 이 땅의 세월은 장군님의 소원이 펼려는 세월, 그이의 꿈이 천으로, 만으로 꽂어나는 세월이다.

무엇 때문인가. 만시름이 풀려진듯

그리고 풀한 화제에 웃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대양상상을 우러르면 어찌하여

이 기쁨드세요?

장전저씨의 미소이다. 이 땅의 모든것을 위해 한생을 꽂았던 미지개신분만이

지울수 있는 참으로 고결한 미소이다.

자신의 운을 불태워 행복의 새

를 안아오신 은혜로운 데 애의 모습이시이다.

횡포인 백두밀립에서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청양생 사나운 눈보라를 맞았던 행명의 천만리를 뛰어오신 우리 장군님.

세상에 그이의 힘을 염양하실험은 없었다. 지금은 고난을 겪지만 해

입은 빛 송의 불이 된다. 그 누가

내 마음 불화줘도 최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비라는 마속죽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며 선플의 힘을 펼쳐온

세상에 가슴을 친다.

행복의 미소에는 꿈과 비상이

비긴다. 간절한 꿈과 비상이 실현될 때 인간이 짓는 웃음처럼 깨끗하고 고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없다.

참으로 품이 많다며 비상도 드시였다.

우리 장군님의 꿈과 비상, 그것은 이 세상에 두려운것이 없는 강대한 나라, 이 세상에 부려운것이 없는 인민의 행복이었다.

한기정이 아니라 온 나라 인민을

가슴에 안으신분이여서 그이의 꿈은

천민까지도 고무장국의 민면미례를

펼쳐시는분이어서 그 꿈은 그리도

취향하고 눈부신것이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현령의 흐름이 아니었다.

우리 멘사들과 인민들의 기초식품

제료로부터 탑달과 달고, 메기고리

물은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청정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신발과 화장품, 꿈과 유원지, 상점과 병원, 아이들에게

제 안전을 품어온다. 그 꿈은 그리도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 파업 관철에 추동하는

## 선전화들 출판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 필승의 무기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새해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 파업을 천지에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이 새로 나왔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同志의 대중운동기념사업회 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강연회가 11일 도포에서 조선선편에서 진행되었다.

강연회에는 풍랑 중앙상임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짓고자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 헌신한 당의 의도가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 필승의 무기!», «로동적 위군과 불온청년 균위대 대원들은 항모방위를 위한 만만한 전투원들이를 축복합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등의 선전화들에 반영되어 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

계급은 당의 사상과 위업을 떼어놓지 않고 당에 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위하여 열사부루하지!», «일군들은 민족을 위하여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위하여 열사부루하지!», «일군들은 민족을 위하여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흥겨워 헤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 위업은 밀승불패이며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

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설명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과 함께서 멀사부루하지!»를

비롯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

로자들이 «7차 대회가 열리는데

강성국가건설의 최종기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당의 현명한

행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미약,

대혁신을



